

# 기아 디올 뉴 셀토스, 출시 첫달 '소형 SUV' 1위 올랐다

### 3월 국내 4천983대 판매 '동급 최강' 젊은층 선호 확대·남녀 균형 구매 하이브리드 39% 고유가 시대 인기

기아 디올 뉴 셀토스(이하 셀토스)가 본격적인 출고와 함께 소형 SUV 1위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셀토스는 지난 3월 국내 시장에서 소형 SUV 차급 가운데 가장 많은 4천983대가 판매되며, 2020년 이후 소형 SUV 연간 판매 1위 자리를 지켜온 1세대 셀토스의 명성을 2세대에서도 이어갔다.

6년 만에 완전변경된 이번 셀토스는 정통 SUV를 표방한 대담하고 각진 외관에 기아의 신규 패밀리룩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해 출시 초기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편의·안전 사양을 갖춰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계약 고객 분석 결과, 셀토스의 20~30대 고객 비중은 30.5%로 기존 모델의 27.8%보다 높아 젊은층의 선호 확대가 두드러졌고, 남녀 성별 비중은 51:49로 균형을 이뤘다.

지난해 서울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기준 20~30대 비중이 18.1%, 남녀 성별 비중이 73:27인 점을 고려하면, 셀토스가 젊은 세대는 물론 남녀 고객 전반으로부터 고른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지난달 출고된 셀토스 가운데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가 46.5%, 디자인 특화 트림인 'X-Line'이 21.9%를 차지하며 상위 트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형 SUV 차급에서도 차량 선택 기준이 가격 중심에서 디자인 완성도, 편의 사양, 감성 품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모델은 판매 비중 38.6%를 차지하는 등 최대 19.5km/l의 경쟁력 있는 연비를 바탕으로 최근 고유가 흐름 속에서 고객에게 실속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기아는 셀토스 시그니처 트림에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오도 플래시 도어 핸들 ▲기아 디



기아 디올 뉴 셀토스가 지난 3월 4천983대 판매돼 국내 소형 SUV 시장 베스트셀러의 위상을 입증했다. <기아 제공>

지틸 키 2 ▲100W C타입 USB 단자 등 상위 차급 수준의 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또한 ▲빌트인 캠 2 플러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1열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 등 다양한 선택사양을 통해 고객의 취향과 사용 목적에 맞

춘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기아는 이러한 셀토스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기술 경쟁력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움직임에 지능을 더하다(Intelligence in Motion)'를 새롭게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된 연비 향상 신기술인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HPC)'와 환승 진보된 청취 경험을 제공하는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소개한다.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시 내비게이션 정보와 레이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주행 상황을 예측하고 고전압 배터리 충전 흐름을 최적화해 실주행 연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는 음악의 저음 주파수를 분석해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에 내장된 네 개의 진동자로 비트를 전달함으로써,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몰입감 높은 4D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기아 관계자는 "디올 뉴 셀토스는 디자인, 효율, 실용성, 편의성 전반에서 균형 잡힌 경쟁력을 갖춘 유망형 SUV"라며 "첫 차를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부터 일상 주행과 레저를 함께 즐기는 고객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키는 모델로서 소형 SUV 시장의 기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 현대차, 중국 맞춤형 전기차로 대륙 시장 공략

### 아이오닉 브랜드 콘셉트카 2종 최초 공개 기술·제품·서비스 현지 고객 중심 재구축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열린 '아이오닉(IONIQ) 브랜드 런칭 행사'에서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브랜드 런칭은 신차 출시를 넘어 아이오닉의 기술·제품·서비스를 중국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재구축한 독자적 브랜드 생태계를 통해 달라진 현대차의 모습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안전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중국 소비자 맞춤형 현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 모멘타와 협업체를 통해 최적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한편, 현지 충전 인프라 및 장거리 이동 환경 등을 고려한 현대차 최초의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기술을 중국 시장에 선보인다.

또 기술 현지화를 넘어 기존 아이오닉 네이밍 방식과 차별화해 중국 시장에서는 고객의 삶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이를 공전하는 '행성'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모델명 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디오리진'도 소개했다.

현대자동차는 '디 오리진' 디자인 언어와 행성 네이밍 체계 아래, 현지 고객에게 맞춤 설계된 콘셉트카 '비너스 콘셉트'와 '어스 콘셉트'를 공개했다.

비너스 콘셉트는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행성인 금성의 밝은 에너지로부터 영감을 받은 세단 콘셉트카다. 외장은 금성을 상징하는 '래디언트 골드' 컬러로 마감했고, 프레임 구조의 루프와

투명 스포일러 디자인으로 하이테크 이미지를 구현했다. 내장은 금성의 두꺼운 대기 구조와 강렬한 광채를 재해석한 층 구조의 조형과 무드 조명을 중심으로 디자인했으며, 도어 트림에서 대시보드까지 곡선으로 잇는 램어라운드 디자인은 탑승자를 감싸는 듯한 안락함을 선사한다.

어스 콘셉트는 지구의 생명력과 생물학적 균형을 구현한 SUV 콘셉트카다. 외장은 선과 볼륨의 정교한 균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볼트 디테일, 스킴드 플레이트 등으로 아웃도어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오로라 실드(Aurora Shield)' 컬러를 통해 조화 속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임채만 기자

## 금호타이어, 폭스바겐그룹 스코다에 OE 공급

<신차용 타이어>

### 엔야크·엘록에 '엑스타 PS71 SUV' 제공

금호타이어가 스코다(SKODA)의 '엔야크(Enyaq)'와 '엘록(Eltro)'에 신차용 타이어(OE, Original Equipment)로 엑스타(ECSTA) P S71 SUV를 공급한다. 공급 사이즈는 235/55 R19와 255/50 R19이다.

스코다는 폭스바겐그룹(Volkswagen Group) 산하에 있는 브랜드로서 체코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다. 스코다의 '엔야크'와 '엘록'은 모두 폭스바겐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 B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기차 SUV 모델이다.

두 차량 모두 전기차 SUV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 요소를 접목했다.

특히, 엔야크는 디자인 혁신과 함께 공기역학적 성능을 향상 시켰으며 엘록은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이번 엔야크와 엘록에 공급되는 '엑스타(ECSTA) P S71 SUV'는 금호타이어의 스포츠형 라인업 엑스타(ECSTA)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 주행 조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 성능에 최적화 개발된 제품이다.

또한 엑스타 P S71 SUV는 기존 엑스타 P S71 핵심 기술에 SUV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구조 보강 설계, 접지 면적을 극대화해 제동 및 마일

리지 성능이 향상된 것이 제품의 특징이다.

또한, 패턴에 인-아웃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신기술을 적용해 도로상황과 무관하게 고속주행 시에도 조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엑스타 P S71은 PCR 규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는 SUV 규격까지 폭넓은 차종에 적용 가능하며, 주요 EV 차종까지 대응 가능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무는 "스코다는 유럽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로 이번 신차용 타이어(OE) 공급은 금호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P S71 SUV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티트 알라드(AutoBild Allrad)에서 실시한 SUV 여름용(Summer) 타이어 부문 테스트에서 국내 타이어 업체들 중 가장 높은 성적인 종합 4위(Good 등급)를 차지하며 글로벌 최상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타이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민생, 영농 서비스를 관건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국민은행!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기본예금과 이자율 0.7% 14.5%로 적립  
-소득 40%의 영리: 2% 적립 / 저영리: 1% 적립  
-국민은행 100만 원 이상 예금 시 1% 적립  
-농협 안전·고급·스마트·특별예금 이자율로 혜택을 누리세요

**농협은행·지역**  
**걱정의 편을, 하나로 완성!**  
**NH농비보험치로보험**

일평균 10만 원의 편익을 누리세요!  
-100세까지 비영생(해당금액의 가입사)  
-정신형 담보 제공  
-첫년도 100% 보상 및 첫년도 10% 보상  
-가입자 1% 할인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 | 해외여행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해외송금 |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농지매매자금 대출인도 최대 80%  
•보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영농·생활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지동지점 062)385-4977~8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춘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나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영동생선터지점 062)361-4472~4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 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